

스포츠, 스포츠 산업, 그리고 인력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었던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생순'이라는 애칭을 갖게 된 우리나라 핸드볼 대표팀의 마지막 3~4위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으며, 거의 매 게임을 가슴 조리고 보았던 야구 대표팀의 우승에 이르는 과정은 왜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부르는지를 잘 알게 해주었다. 더욱이 0.01초의 차이로 1, 2위를 다투었던 육상과 수영에서는 인간 한계의 벽이 연이어 깨지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였다. 스포츠는 이렇게 관람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직접 참여를 통해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는 등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크다.

스포츠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산업화 시점이 늦었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인 산업으로서는 물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뚜렷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산업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이며 따라서 그 범위를 한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 목적이나 국가별로 스포츠 산업의 정의와 범위 및 구분은 다르다. 하지만 크게 보아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선수들이 공급하는 경기라는 서비스를 관객 혹은 시청자들이 소비하는 행위나 스스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은 올림픽 등과 같이 실제 경기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업, 올림픽 후원사와의 계약, 참가 선수들을 활용한 마케팅 등 스포츠 마케팅업, 각국의 방송서비스 등 스포츠 미디어 산업, 주 경기장 건설·운영 등 스포츠 시설업, 각종 용구 및 계측기계 등 스포츠 용품업 등 1차적으로 스포츠

와 관련된 산업들과 스포츠�관광 산업, 스포츠문화 산업, 스포츠 의학·과학 산업, 스포츠IT 산업 등 2차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들로 구성된다.

스포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명승부를 보여주는 주체도 운동 선수이며 이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지도자,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 경기를 열고 운영하는 연맹과 협회, 구단과 마케팅 회사 등 대부분의 스포츠 산업을 구성하는 주체와 단체들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력, 기획력과 창의력, 소통 능력 등 기계나 장비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의 노동이다. 따라서, 사회에 즐거움과 건강을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 이외에 여타 산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적 기능도 커지고 있는 스포츠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럽·일본 등 해외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스포츠 분야가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최근의 일로, 지금까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조차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7년 7월에 유럽연합(EU)이 스포츠에 대한 백서를 채택하여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스포츠 조직을 주요 3개 부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선수 대리인 등 스포츠 산업의 주요 인력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특정서비스 산업 통계월보를 통해 피트니스 분야에 대한 고용 통계를 정기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최근 들어 스포츠 선진국들이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 분야의 인력 및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대중적 인기도 등 종목별 특성, 직군별 특성에 따라 고용 특성이 달라진다. 또한 국가별 스포츠 산업구조와 발전 정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스포츠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부분 협회를 통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협회들은 각 종목 연맹체(연합)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1인 고용 사업체가 전체의 41%로 규모가 영세하며 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국가협상위원회, 고

용 및 훈련, 계약해석, 프로스포츠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와 스포츠 분야 전문협의회(CPC)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직업, 교육, 전문화, 자격 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으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고 보인다. 주로 해외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거나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선전을 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이런 스타급 혹은 사회적 인기가 높은 종목의 일부 선수들과 관련 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제대로 된 보상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직까지 스포츠 산업 인력의 종합적인 모습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노사 양측을 대표할 만한 노조 및 사용자단체의 결성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정부도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관람과 참여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올림픽 메달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와 축구 및 야구 등 인기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를 달고 뛰는 대표팀 경기를 TV를 통해 시청하면서 애국심과 뒤섞인 기쁨과 감동을 얻거나 유명 프로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이 진정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 스포츠 관련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프라, 프로스포츠인 경우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구단과 관객 구조 등이 사회에 갖추어져야 하며 이런 인프라들의 핵심에는 선수, 코치, 시설 건설 및 운영자, 협회 및 연맹, 구단 관계자, 교사, 미디어 종사자, 용품업체 종사자, 마케팅 종사자 등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인력들이 있다.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조사 및 연구, 필요한 정책 지원은 우리 사회에 스포츠 활동을 만개시킴으로써 힘든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복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다. **KLI**